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9 | 제151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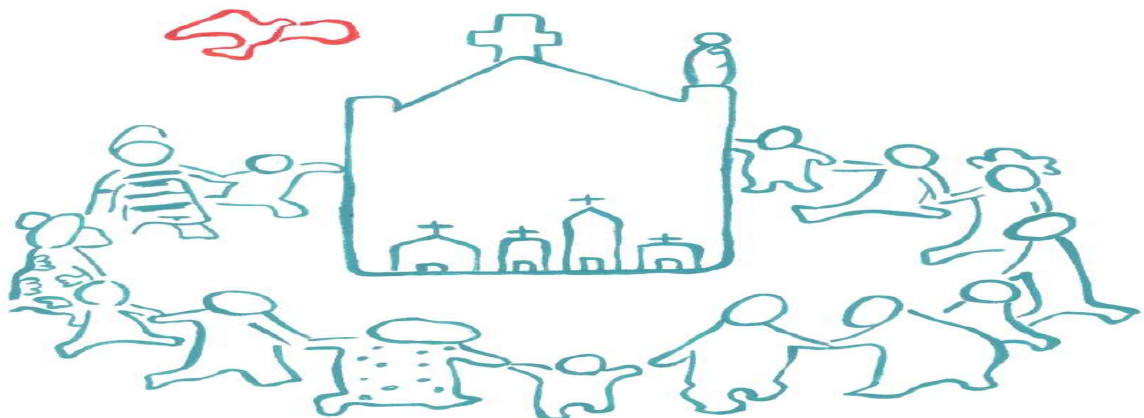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24주일 (9월 12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마르 8,27-35)



각자의 십자가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합니다. 아픔은 영혼의 힘입니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아픔의 계단을 딛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번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 8,27)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 8,29)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34)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아래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고 계세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한 돈이나 물건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도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 사실은 늘 좋은 모습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복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서로 대치될 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상대방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서로 다를 경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마음들, 그 마음을 부추기는 욕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 중심의 욕구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예수님 말씀은 일부러 또 다른 십자가를, 고통을 찾아서 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의 욕구에서 벗어나는 힘겨운 과정을 잘 참고 이루어내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나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근본적인 욕구들을 따르지 않는 것, 나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해주신 모습 그대로의 본성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잃어버린 본성 말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힘겹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여정 자체가 곧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신문, 2017년 11월 19일(3070호 16면), 가톨릭 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민범식 신부)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연중 제 25주일 (9월 19일)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르 9,30-37)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현존 속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30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31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34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3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36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37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 나누기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마르 9,34)

주위에서 이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제네시 일기(The Genesee Diary)」 등 20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나웬(H. Nouwen; 1932-1996) 신부. 그는 1986년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 (L' Arche Community)'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신지체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며 살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걸어왔다. 어릴 때부터 늘 일등으로 달려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지금 정신지체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란 내리막길을 갈 때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 가톨릭 출판사, 2013, 192-193p)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는 이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이를 세우고 껴안으시며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이는 약하고 소외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즉,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꼴찌가 되는 사람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시는 꼴찌의 삶을 사셨으며 마침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꼴찌의 삶, 섬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기쁘게 만날 내일을 준비 문산본당 LH8단지 소공동체 반장 (류향림 바울리나)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요즘, 반원들과 함께 했던 소공동체 모임 회의록을 펼쳐 보았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8단지에 신자들이 하나둘 전입할 무렵인 2018년 7월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반모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2020.2월.제124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복음말씀으로 반원들끼리 나누었던 이야기들, 출석부, 회비장부도 그대로인채.... 그래서인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날들이 더 진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반원들 집에서,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카페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벤치에서 도란도란 앉아 복음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반별로 지정된 동산 풀뽑기와 성전 청소를 하는 날이면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았고, 청소 후 맛있는 식사와 차를 마시는 즐거움은 우리 소공동체만의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반미사와 반모임에 함께 하신 날은 그 은혜가 배로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저희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구역장님이 허리와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을 위한 반원들의 진실된 기도와 사랑을 보면서 소공동체 모임이 없었다면 나누지 못했을 하느님 안에서의 우애와 사랑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교통이 불편해 성당에 오지 못하는 반원들에게 차량봉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웁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제약의 시간은 서로를 잊고 지낸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큰 기쁨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닌 사랑과 은총의 시간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고 기쁘게 만날 내일을 준비해 봅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성경 해석」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은 ‘교회의 신앙’, 곧 “성경 전체의 불빛이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주님의 말씀, 29항 참조) 그리고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에 의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백성과의 이러한 친교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주님의 말씀, 30항)

나아가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문헌에 따르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해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유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 독자가 성령의 생명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교회 안의 성서 해석, 11, 가, 2) 그러므로 성경의 참다운 해석은 “지적인 것으로 그칠 수 없고 또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른’(갈라 5, 16) 삶인 교회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주님의 말씀, 38항) 이러한 뜻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2코린 3, 6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에 힘입어 “믿음의 내적 은총 없이는, 복음의 문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신학대전, I - II, q. 106, art. 2)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교육 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